

<수의 비밀(한용운) - 수능특강 74p 관련>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04 고3 경기도>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매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의 :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절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를
오늘은
송이송이 흰 절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갔다. [D]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지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 문정희, 「절레」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3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매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33.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의비밀(한용운) <17-04 고3 경기도>

[31-33]

31. [출제 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④ (가)는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에서, (나)는 '추억을 털며'와 '아픔이 출렁거리'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명암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 의도] 의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가 대상의 부채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제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건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보기>의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종결짓지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는 임의 부채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심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는 화자가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는 행위의 과정에서 '맑은 노래'가 된다고 했으므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화자가 임의 부채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 및 기능 비교하기

⑤ [C]의 '맘을 잃어갔다'는 과거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고, [D]의 '무성한 사랑'은 '예쁘고 뽀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D]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C]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의 '서 있고 싶다'는 [B]와 [D]에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정서를 의미하고, [D]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꽃이 되었을 이름'을 통해 꽃이 되지 못한 화자의 아쉬움을 알 수 있고, [D]에서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서 있고 싶다'를 통해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의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B]의 '추억' 속의 화자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수의 비밀(한용운) - 수능특강 7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
 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 보
 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심: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가 입던 옷옷.
 *도포: 예전에 선비들이 통상의 예복으로 입던 겹옷
 *자리옷: 잠잘 때 입는 옷

(나)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였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 나희덕, 「푸른 밤」 -

*에움길: 굽은 길. 에워싸 돌아가는 길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부사어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운율감을 자아 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역설을 통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나)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소재들의 열거를 통해, (나)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가 여성임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로, '당신'을 위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 ② ㉡은 '나'가 수놓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위안과 정화된 마음을 의미한다.
- ③ ㉢은 '나'가 주머니의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당신'과 잘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은 '나'의 감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너'에 대한 '나'의 변함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 ⑤ ㉤은 '너'와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나'가 걸어야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과정을 의미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역설법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으로,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더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가)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기다림을, (나)는 한 사람을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을 통해, 임의 옷을 미완성인 채로 계속 남겨 둔 이유를 밝혀 임과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 ② (가)에서는 '나가 '수 놓는' '작은 주머니'에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것을 통해, 수를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었음을 밝혀 임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나가 '나의' '수만 갈래의 길이' '네게로 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화자 자신의 생애가 한 사람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군.
- ④ (나)에서는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너'와의 사랑 속에서 감정의 격랑을 제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군.
- ⑤ (나)에서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길이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한 사람을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수의 비밀(한용운)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㉔ (가)는 화자가 입을 위해 만든 '심'의, 도포, 자리옷'이라는 입이 입을 옷을 나열하여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나)는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내'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깊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㉔ (나)는 4연에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가)는 2연에 '그러고'라는 접속 부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앞의 내용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지는 않다. ㉕ (나)는 3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이라는 명사형 종결 방식의 문장이 있지만, (가)에는 명사형 종결 방식의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㉖ (가)가 오히려 '것'이 싫어서 '것'이 싫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㉗ (가)는 '~습니다'라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한다.

㉘ ㉙ '모든 지름길'은 5연의 굽은 길을 뜻하는 '에움길'과 대립적 성격을 지닌 길로, 화자는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너'와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화자가 걸어야 하는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은 '지름길'이 아닌 '에움길'로 볼 수 있다. '지름길'은 '에움길'과는 대조가 되는 쉬운 사랑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㉘ ㉙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가 입던 옷으로 화자가 '당신'을 위해 이 옷을 만든 것으로 볼 때,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소재로 볼 수 있다. ㉚ (가)의 2연에서 화자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자신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㉚ '맑은 노래'가 나온다고 했다. 이로 볼 때 ㉚ '맑은 노래'는 화자가 수놓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위안과 정화된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㉛ (가)의 2연에서 화자는 입의 옷에 달린 주머니에 손을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㉛ '보물'은 화자가 주머니의 손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고, '당신'의 옷에 달린 주머니에 들어갈 당신과 잘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㉜ ㉝ '두레박'은 이 시에서 물을 길는 두레박이 아니라 화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너'에게 드리웠던 '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소재이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㉞ (나)의 3연에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는 화자가 '너'와의 사랑 속에서 겪은 감정의 격랑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감정의 격랑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㉞ (가)의 2연에 '것'이 싫어서 '것'이 싫은 것입니다'는 앞과 뒤의 진술이 모순된 역설적 표현으로 앞부분의 '이 작은 주머니는 것이 싫어서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화자의 말로 볼 때, 이는 입의 옷을 미완성인 채로 계속 남겨 두어 입과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를 놓는 일은 입을 기다리는 과정이자 자기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㉞ (가)의 2연에 수놓고 있는 주머니에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것은 화자가 그 주머니를 오랫동안 자주 만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수를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된 것으로, 입의 부채를 인식하면서도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㉞ (나)의 1연에서 화자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 5연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생애는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의 생애가 '너'를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㉞ (나)의 1연에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는 앞뒤의 진술이 모순된 역설적 표현으로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사랑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윤사월(박목월) - 수능특강 76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피꼬리 올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고
 엇듣고 있다

- 박목월, 「윤사월」 -

(나)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뿌여니 흠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고개를 앓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 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고깔 쓴 여승(女僧)이 서서 염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 고랑이 깊은 음색과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 낮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발치로 바릿대*를 든 여승(女僧)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 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승(小僧)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참사운데 그만 들어가 보여앉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 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로 뒤돌아 뛰어오며 ㉣ 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에
 마구 흠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女僧)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 머릿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女僧)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事物)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詩)를 쓴다.

- 송수권, 「여승」 -

* 포름한: 산뜻하게 파르스름한.
 * 바릿대: 절에서 쓰는 여승의 공양 그릇.

-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는 일정한 음보의 반복을 통해, (나)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
 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작품 표면에 직접 등장하여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
 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여승의 모습으로, 속에서 여승
 의 삶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은 화자가 여승에게서 느낀 감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
 으로, 화자가 여승의 뒤를 따라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③ ㉢은 화자가 여승에게서 받은 느낌이 투영된 여승의 모습으로,
 화자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④ ㉣은 여승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켜 도망치는 화자의 모습으로,
 화자가 여승이 한 말로 인해 상처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화자가 꿈속에서 본 여승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여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봄날의 이상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어
 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늦은 봄날, 세상과 떨어진 채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눈먼 처녀의 애절한 심정과 바깥세상에 대한 동경
 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나'가 과거 어느 봄날 감기를 앓
 던 때에 여승의 애달픈 모습을 보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그때
 느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가)에서 '피꼬리'의 울음소리는 바깥세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눈먼 처녀'의 애절한 심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군.
- (나)에서 '나가 쓰는 '시'는 '나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
 음을 고백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군.
- (가)의 '송화가루 날리는' '윤사월'의 풍경과 (나)의 '살구꽃 그
 림자에 뿌여니 흠바람이 끼'는 풍경은 봄날의 이상적 분위기
 를 조성할 수 있겠군.
- (가)의 '산지기 외딴집'은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하
 는 '눈먼 처녀'의 애달픔을, (나)의 '먼 절간'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여승'의 애달픔을 보여 주는군.
- (가)에서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 대고 엇듣는' 행위와
 (나)에서 '나가'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여승을 훑쳐보는 행
 위는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윤사월(박목월)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① (가)는 먼저 1연과 2연에서 송화가루 날리고 피꼬리 우는 윤사월의 외판 산속의 풍경(원경)을 나타낸 다음, 3연과 4연에서 외딴집에서 피꼬리 울음소리를 엿듣는 눈먼 처녀의 모습(근경)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과거 어느 봄날에 '나'가 여승을 만났던 잊지 못할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에서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3음보와 7·5(6·5)조의 일정한 음절 수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나)에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는 작품 표현에 '나'라는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시적 대상인 '여승'을 관찰하고 있지만, (가)는 작품 표현에 화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작품 바깥에서 시적 대상인 '눈먼 처녀'를 관찰하고 있다. ④ (나)에는 '고랑이 깊은 음색'(청각의 시각화), '낮달의 포름한 향내'(시각의 후각화) 등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시각적,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다. ⑤ (가)의 2연에 '피꼬리 울면'은 감정이입이 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시어 및 시구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④ ㉔'열에 흐들히 젖은 얼굴'은 화자가 여승에게서 느낀 순수한 감정으로 인해 동구 밖까지 여승을 따라나섰다가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난 것으로, 여승이 자신에게 한 말로 인해 화자가 상처를 받은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또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여승의 말은 여승이 화자에게 직접 건넨 말이 아니라 여승의 이미지와 모습을 통해 화자가 상상한 말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㉓ '고랑이 깊은 음색과 설움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은 화자가 여승을 처음 보았을 때의 잊을 수 없는 이미지로, 여승이 속세에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화자가 생각이 반영된 표현이다. ② ㉒ '낮달의 포름한 향내' 여승에게서 받은 화자의 황홀했던 마음을 공감각적 심상(시각의 후각화)을 통해 형상화한 것으로, 화자는 결국 애지고 막막한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동구 밖까지 여승을 따라나서고 있다. ③ ㉑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은 화자가 여승에게서 받은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뒤에 이어지는 여승의 말로 볼 때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 준 화자에 대한 고마움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승의 안타까움이 함께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여승이 사는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은 세속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순수하고 깨끗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이따금 꿈속에서 만나는 여승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표상하는 '머뭇일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다고 했으므로 ㉔ '머뭇일 이슬'은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여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가)에서 눈먼 처녀가 지나는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찾아볼 수 없으며, (나) 역시 장지문을 뚫고 엿보는 것 자체는 연민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눈먼 처녀'는 동경의 대상인 바깥세상을 직접 볼 수 없는 슬픔과 한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눈먼 처녀'는 피꼬리 울음소리를 통해 계절을 느끼고 바깥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피꼬리 울음소리는 동경의 대상인 바깥세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눈먼 처녀'의 설움과 한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나'는 아직도 자신이 가슴이 여승을 만난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넘쳐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이로 볼 때 '나'가 쓰는 '시'는 여승을 만난 그날, 여승에게서 느꼈던 '나'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송화가루 날리는 윤사월의 풍경과 (나)의 살구꽃 그림자에 뿌연 흙바람이 끼는 풍경은 모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 작품의 주된 정서인 그리움, 동경과 어울리는 봄날의 이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가)의 '눈먼 처녀'는 세상과 떨어진 채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살아가면서 바깥세상을 동경하며 그리워하고 있고, (나)의 여승은 속세에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종교에 귀의하여 세상과 단절된 먼 절간에서 살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의 '눈먼 처녀'가 사는 '산지기 외딴집'과 (나)의 '여승'이 사는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두 인물의 애달픈 삶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자화상(윤동주) - 수능특강 76p 관련]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학년도 대수능>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어
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

(나)

떡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배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려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B]

[A]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
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
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
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판',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이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벗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자화상(윤동주) <11학년도 대수능>

[13-16]

13.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④ (가)에서는 '그 사나이'(화자 자신)가 가엾어진다고 자기 연민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요기도 못해 배고픈 아낙네들을 딱하게 여겨 '빈 광주리야 ~ 오죽 가벼울까'라고 연민을 드러냈으며, (다)에서 '눅된 그 나무'를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14.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 이해의 적절성 평가)

④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6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연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의 미운 모습과는 다른, 과거 속에서의 순수한 자아를 보는 것이다. 과거의 순수한 자아는 곧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연을 자신에 대한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우물 속에 투영된 자신을 미워하고 가엾어하며 그리워해 온 이제까지의 내적 갈등이 6연에 이르러 우물이라는 모태와도 같은 공간 속에서 과거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극복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외판', '홀로', '가만히', '들어다봅니다'는 1연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행위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화자 자신의 내적 모습을 투영해 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②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③ 3-5연에 나타나 있는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엾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라는 심경의 변화는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반응이므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작품 간의 표현 특징 비교)

② [A]에서는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말소리를 '짖어댄다'의 반복과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의 반복으로 병치해 농음으로써 운율감이 조성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16.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시어 및 시구에 대한 해석)

④ '산에서 내려 ~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부분은 화자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난만한 불길'은 화자 자신이 겪었던 짧은 시절의 혼돈이나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무'도 자신과 같이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눅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눅된 '그 나무'와 함께 '눅짜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시오릿길'은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말이다. 이 공간은 선제리 아낙네들이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②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서로 의종계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얼마나 의종은 한세상이더냐'라고 공감을 표하고 있다. ③ '눅된 나무가 비로소 밝히드느'이라고 수식이 되어 있으므로 ㉔의 주체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나무'이다. 따라서 ㉔은 '그 나무'가 꽃을 성화(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시구로 볼 수 있다. ⑤ '눅짜이 깨달음'이라는 앞서의 시구와 관련하여 '소신공양', '소지'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불타는 소신공양'은 만발한 벚꽃들의 가을 모습이고, '가난한 소지'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눅된 '그 나무'의 가을 모습이다. '그 나무'와 자신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자화상(윤동주), 배꼽을 위한 연가 5(김승희) - 수능특강 76p, 35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A]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둠터라도
결코 인당수에는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B]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C]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D]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다는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E]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③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대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B] : 선어말 어미 ‘-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C] :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주체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설득적 어조를 통해 대상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 ⑤ [E] :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어는 독립된 낱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는 시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 속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 ① (가)는 ‘우물’ 앞에 ‘외딴’이라는 수식어구를 결합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한 사나이’로 표현하여 자기 성찰을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나)는 ‘나비’가 되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애벌레’를 제시하여 다른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미워져 돌아갑니다’와 ‘그리워집니다’를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나)는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를 통해 자기 선택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군.
- ⑤ (가)는 ‘우물 속’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나)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를 통해 외국어에 의존하는 자세를 비판하고 있군.

자화상(윤동주) / 배품을 위한 연가 5(김승희)

01.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성을 이해한다.

② 마지막 연은 2연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수미상관식 구성은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의문형 진술이 사용되어 있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니 다'와 같은 산문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성찰 행위, 자신에 대한 연민 등이 부각되고 있다. ③ '괴이한 바람'은 촉각의 시각화를 이용한 공감각적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화자의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우물 속' 세계는 화자가 서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⑤ 우물 안 공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괴이한 바람'같이 시적 허용을 활용한 표현이 확인되지만, 그것이 특별히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의도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

02. [출제 의도] 서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④ [D]에서 대상의 역할을 오히려 능동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것에 가깝다. 외국어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화자인 '저'가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시를 짓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않겠습니다.', '보겠습니다.'처럼 선어말 어미 '-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C]에서는 '~가 ~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죄일까요?)'의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주제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E]에서는 '외국어와 같은 것'처럼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세계를 현실과 다른 공간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나) 화자는 외국어 의존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학습하듯 살은 능동적 주제적 투쟁 과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우물' 앞에 '외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표현함으로써, 외롭고 고독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우물 속의 남자를 '한 사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려 시도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별레'는 '나비'로서 날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 역시 주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④ (가)의 화자는 우물 속의 '한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미워'지기도 '그리워'지기도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드러낸다. 한편, (나)의 화자는 '죄일까요?'라며 설의법을 활용함으로써,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